

남북평화·불법중흥의 ‘염원’

해운정사, 평화의 탑 제막식 롬비니 평화의 불 봉안대법회

선목해자 스님이 네팔 석가모니 탄생지인 롬비니 공원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이 부산 해운정사에 봉안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주석하는 부산 해운정사는 ‘평화의 탑 제막식 및 평화의 불 봉안 대법회’를 8월 26일 경내에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진제 대종사, 도선사 주지 선목해자 스님, 법산 스님, 박대성 해운정사 신도회장을 비롯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 참여객 800여명도 함께했다. 원통보전에서 봉행된 평화의 불 봉안대법회에서 종정 진제대종사는 “이 평화의 불이 마음의 잠 나를 찾고 갈등이 없는 중도의 실상이 실현되도록 화두를 참구하여 부모미생전의 참 소식을 찾아 정진하자”고 법어를 내렸다.

도선사 주지 선목해자 스님은 인사말에서 “정전60주년을 맞아 남북평화정착과 불법중흥의 염원을 담아 불을 이운하게 됐다”며 “평화의 불 봉안을 계기로 종정예하께서 주석하시는 해운정사가 한국불교중흥의 발원지, 남북평화정착의 기원지, 한국 선 세계화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운정사 박대성 신도회장은 환영사를



부산 해운정사는 8월 26일 ‘평화의 탑 제막식 및 평화의 불 봉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진제 대종사, 선목해자 스님, 법산 스님.

사부대중 1500여명 참석

“중도의 실상이 실현되길”

진제 대종사 법어 내려

통해 “부처님의 혜명이 해초 스님의 구범의 길을 통해 평화의 불로 오게 됨에 큰 감동과 환희심으로 베풀었다”며 “종정예하와 선목해자 스님 및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前 동국대학교 선학원교수 법산 스님은

축사에서 “이 평화의 불은 부처님의 반야 지혜의 등불로 마음의 자유, 가족의 행복, 사회의 평화를 성취하며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모든 인류가 전쟁의 공포가 소멸되는 평화의 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평화의 불 원불 이운봉안 대법회, 박대성신도회장 환영사, 선목해자 스님 경과보고 및 인사말, 법산 스님의 축사, 진제대종사 법어, 평화의 탑 제막식 및 평화의 불 봉안점화식,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진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응공조계종 ‘구족계 및 포살 보살수계 법회’ 열어

8월 25일 대구 엑스코 3층서... 500여명 동참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교풍을 이어가는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법진)은 8월 25일 대구 엑스코 3층에서 ‘구족계 및 포살 보살수계 산림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종정 석범은 대종사와 종단 원로의장 보운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비구니원장 법화 스님의 발원으로 육법공양과 권공, 시식, 여래심보살 3인의 나비작법이 식전행사로 펼쳐졌다.

이후 반야심경 봉독-묵념-고유문-낭독-총무원장 법정 스님의 봉행사가 이어졌다. 종단 중앙신도회 조태흠 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자비의 문을 열고 구원의 실상을 밝혀 어두운 중생의 길을 밝혀 넓은 바다를 건너는 지혜의 배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행사는 구족계를 설하며 수계식이 진행되었고 합창단의 정병가 후 법운 종정 스님 법문이 이어졌다. 법운 종정 스님은 계율은 스승임을 강조하면서 “복을 받길 바라지 말고 탐진취 삼독을 버려야 한다. 이를 통해 병든 자에게는 약이 되고 어둠속 밝은 등불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은 8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구족계 및 포살 보살수계 산림대법회’를 개최했다.

이 되어 세상을 환히 밝히는 계를 받는 것”이니 “반야의 지혜 등 불을 밝혀 고해의 바다를 건너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참회진언과 함께 수계자들은 호계합창하여 연비의식을 치른 뒤 대종스님들께 삼배를 올리고 수계자 대표가 계점수여를 받았다. 이후 합창단의 축하와 축하무, 사홍서운 산회가로 구족계 및 대승보살계 수계식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한마음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각성 스님 <원각경> 특강

8월 26일~30일 고운사 체험관서

이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각성 스님의 ‘원각경보안보살장’ 특강을 8월 26일~30일 고운사 체험관에서 진행했다.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환을 여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원각경(보안장)>을 보라. 몸과 마음이 환이라 의보와 정보의 관이 멀하면 청정하고도 뚜렷이 밝은 부처님의 경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 보안보살은 환을 여의고 행을 닦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무루인연공덕으로 선근을 심으시길 발원한다”며 법문했다.

이날 특강에는 고운사 회주 송암혜승 스님 등을 비롯해 130여



각성 스님이 고운사서 ‘원각경보안보살장’ 특강을 하고있다.

명이 참석했다. 4박 5일 간 진행된 각성 스님의 ‘원각경보안보살장’ 강좌는 안거 해제 때마다 하고 있으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 받아 교육을 수료한 후 3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이에 해마다 전국에 많은 스님들이 특강에 참여한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시주 목록 1위 ‘기와’ 제대로 사용돼야

전통사찰의 경우 경내의 건물은 대부분 토종기와를 얹은 전통한옥이고 보면 사찰에서 기와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다. 기와는 이제 많은 사찰에서 시주목록 제1위가 된 지 오래이다.

예전에는 절 들어가는 길목이나 강당 전면 공간 등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설좌판을 설치하고 소극적으로 기와시주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와시주를 받기위해서 임시건물까지 지어놓고 적극적으로 기와시주를 권유한다. 심지어 법당 앞마당에서도 기와시주를 받는 것을 보면 기와불사가 사찰경계에 유익한 면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사찰에서 특별한 물건을 시주받는 것은 응처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 시주를 올리

는 불자들이도 공양물이 제대로 쓰이는 것을 전제로 시주를 하게 된다. 이를테면 대들보용 목재를 시주하는 이는 그 목재가 대들보로 쓰이는 것을 전제로 시주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아니면 방치될 경우 아예 시주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찰에 기와를 시주하는 이는 오래된 기와를 새 것으로 같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짓게 될 때 지붕에 그것을 올려 부처님 공전에 물이 새지 않고, 바람을 막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주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소원을 비는 갖가지 문구를 기와에 적고 시주를 하는 이의 이름까지 적어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불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정성스럽게 시주한 기와를 시주한 이의 원대로 부처님 공전을 보전하는데 쓰고 있다. 기와라는 것이 작은 물건이기는 하지만 웬만한 규모의 법당지붕을 잇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이 들어간다. 따라서 살림살이가 풍부한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기와를 사서 건물에 올린다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불자들이 시주한 기와는 사찰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일부사찰에서 불자들이 정성스럽게 시주한 기와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소원을 적은 기와가 제대로 용도를 찾지 못하고 흠대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불자들이 시주를 하는 것은 복을 짓기 위함이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자비스러운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어 시주한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아야말로 다른 어떤 포교보다도 더 큰 포교가 아닐까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정성스럽게 시주한 기와가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안된다. 복을 짓기 위해 시주한 아름다운 마음이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 사진은 불사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경남 古사찰의 기와더미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전국
서울. 의정부



구단구궁법

특
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